

시시비비는 많을수록 좋다

문학 하는 이들 사이에 '요즘 표절시비가 한창이다. 문학과 예술에서 표절시비란 하등 새로운 것도 없는, 늘 반복돼 오는 것이긴 하지만, 이즈음의 그것이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90년대의 이른바 '신세대문학'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 계간문예지의 소설공모 당선작과, 또다른 계간지의 공모전 당선작이 표절시비와 관련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인데, 그중 하나는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작가와 평자간의 논전이 한차례 진행 된 바 있다. 다른 하나는 아직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역시 표절의 혐의가 짙다는 것이 작품을 읽어본 이들의 대체적인 평가인 듯하다.

이 자리는 물론 그러한 시비의 진위를 가릴 만한

곳이 못된다. 작가의 문학적 도덕성을 의심할 만한 명백한 표절행위인지, 아니면 관행의 잣대로는 잴 수 없는 새로운 기법인지의 여부는 관련 전문가들의 보다 활발한 논의를 통해 차차 밝혀질 것이다. 어쩌면 명백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그저 그런 시비가 있었다는 식으로 유아무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점은, 문학관에 관한 한, 시비거리를 찾아내고 문제로 삼는 감시자들이 광범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그러한 시비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될 수 있을만큼 문학에 대한 관심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출판의 경우는, 유감스럽게도 아직 그 단계까지 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즈음 문

학관의 표절시비는 오히려 부러운 현상일 수 있다. 출판에서의 표절문제(가령 모방출판이나 중복출판, 혹은 짜집기 출판 등)가 문학에 비해 훨씬 심각한 형편인데도 그것에 시비를 거는 이가 드물고, 설사 시비거리가 되더라도 출판계 바깥에서까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일은 더더욱 드물기 때문이다. 문제는 표절에만 그치지 않는다. 비근한 예로, 이른바 베스트셀러가 갖는 책으로서의 진정성을 비롯해 작금의 한국출판에서 문제적 현상으로 거론될 만한 것들은 얼마든지 많다. 그러나 그것들이 제대로 문제제기되는 경우란 거의 없을 뿐더러, 되더라도 출판계 내부의 '집안 이야기' 수준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한다.

문제는 많아도 문제제기가 없는 곳, 문제가 제기되어도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하는 곳이 오늘날의 우리 출판계라고 한다면 과연 지나칠까. 출판의 문제점들이 적극적인 시비의 대상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아예 무망한 기대일까.

—강철주 기자

출판저널

등록 제107호 / 1992년 6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銀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鄭素淵 崔兌源
 鄭惠玉 金重植
 디자인 — 尹貞子 南明希
 사진 — 金弘鎮

업무부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養天 崔炳天
 金谷一 金牧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주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중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규정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 權亨彬 | 琴章泰 | 金光秀 | 金文煥 |
| 金錫滿 | 金聖坤 | 金彦鍾 | 金榮漢 |
| 金仁會 | 金鍾元 | 金治洙 | 金泰俊 |
| 金泰賢 | 金泰亨 | 朴明淳 | 朴星來 |
| 朴世熙 | 潘星完 | 邊衡尹 | 徐淵昊 |
| 宋相庸 | 申福龍 | 慎鍾夏 | 安秉永 |
| 安輝燾 | 梁文吉 | 吳光洙 | 柳一相 |
| 尹志寬 | 李康淑 | 李瑛薰 | 李光周 |
| 李基相 | 李斗暎 | 李萬烈 | 李炳勳 |
| 李相日 | 李勝羽 | 李元毅 | 李重漢 |
| 李姬載 | 林煥燾 | 張必和 | 張會翼 |
| 鄭丙圭 | 鄭爽鍾 | 鄭雲暎 | 鄭晉錫 |
| 鄭鎮弘 | 曹南鉉 | 曹大鉉 | 崔鍾庫 |
| 韓相慶 | 韓勝憲 | 許頌烈 | 洪廷善 |
| 黃鉉鉞 | | |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 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주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재미있는 책이야기

프랑스 신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70년대에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을 통해 공산주의의 몰락을 예고했던 베르나르 앙리 레비, 자유에 대한 사랑을 철학의 기본원리로 삼아 마르크스주의자와 유럽의 좌파 지식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소설가로서도 능력을 인정 받는 그가 지난해 5년간의 취재와 집필을 거쳐 발표했던 「자유와 모험」(한지희·김희숙 옮김, 동아출판사)은 드레퓀 사건 이후의 지식인들의 실상과 허상을 날카롭게 파헤친 책으로, 각종 자료의 발굴과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씌어진 다큐멘터리로 책과 함께 TV물로도 제작됐다. 다음에 소개하는 글은 미셸 푸코에 대한 것이다.

푸코 내가 푸코를 만난 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다. 물론 나는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그를 다시 본다. 그 유난스럽게 생긴 청동머리와 좀 울리는 듯한 말소리, 그리고 어딘가 악마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 내면에서부터 울리는 이상한 웃음도. 그리고 일단 터져나와 그 기분 좋고 숨김없는 웃음 소리로 바뀌면, 레리스가 바타이유에게 말했다는 그 '들 짐승의 이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 웃음도 함께. 나는 레카미에 극장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그를 다시 만난다. 거기서 나는, 내가 자주 들락거리기 시작한 출판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그를 즐겁게 한다. 몽마르트 가에 있는 「랭프레뷰」지 사무실에서도 그를 만난다. 그는 어느날 밤 거기로 우리 잡지 제1호에 실을 평론을, 대답이었던가?, 손수 가져왔다. 또 한번은 장 다니엘의 집에서 그를 만난다.(중략)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나는 이제 푸코와 그를 떠받드는 이 공식적인 숭배자 사이에는 일종의 묵인을 겸한 애정 같은 게 숨어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것은 비슷한 자들의 야유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푸코가 그에게 부친 믿을 수 없는 편지들(사적인 편지들임에는 틀림없지만 너무나 기쁜 내용이라서 받는 이로 하여금 파리 전체에 그것들을 보여주고 싶다는 순수한 기쁨을 억누를 수 없게 만드는) 속에서 사람들이 바라든 바라지 않든 간에, 진지한 어조로 나타난다. "저는 당신의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광기의 역사」를 쓴 저자는 실제로 그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고문서 보관인일 뿐입니다. 조출한 고고학자. 나는 당신이 장군으로 있는 훌륭한 거대한 군대의 가엾은 보병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 좋다. 나는 마침내 보지라르 가에 있는 그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

일이 기억난다. (그리고 이걸 지금으로서는 아주 본질적인 회상이다). 그 아파트는 현대식이면서 야릇하게 기능적이었는데, 거기에는 책들이 보이지 않았고 (내 생각에 그것들은 옆방 서고에 다시 집결된 것 같았다), 한마리 고양이와 존재만이 유일하게 좀 문학적인 색조를 더해주고 있었다. 그는 왜 나를 맞아들인 걸까? 그가 말한 것처럼, 나는 이미 "그를 몇번씩이나 골탕먹었는데도" 아직도 동정의 여지가 남아 있는 걸까? 내가 그의 무료함을 달래주기도 했던 걸까? 이따금 그에게도 다른 것들에 대해, 예를들면 여자들 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얘기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그를 즐겁게 했던 것일까? 그와 더 가깝긴 하지만 그를 구트 모르나 뭐 감옥들 안에 가둬둘 수밖에 모르는 그 영원한 투사들로부터 내가 그를 좀 변화시켜주었던 걸까? 어쨌든 그는 나를 맞아들였다. 우리는 별의별 것에 대해 다 얘기한다. 기자들의 오만방자함과 그들의 문맹에 대해. 그는 「지식의 의지」가 막 나왔을 무렵에 더 이상 아무런 인터뷰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내게 말한다. "왜냐하면 사실, 그들 입장에서 신문사 일을 해줄 아무런 이유도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가 약간은 '자기' 잡지처럼 생각하는 「누벨 옵세르바퇴르」에 대해 얘기한다. 아무리 뭐라 해도

이 잡지에만은 그가 대답에 응해주었다고 한다. 우리는 「지식의 의지」에 대해 말한다. 권력과 저항,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역사에 대해. 우리는 또, 현대는 성을 검열하기보다 오히려 성을 억지로 드러내서 말하도록 강요한다는 그의 주장이 뜻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얘기한다. 우리는 기진맥진해진 좌익사상에 대해 말한다. 미테랑에 대해. PC에 대해. 그는 웃으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프랑스를 떠나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굳게 든다고 말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권력'과 '저항', '판석'과 '모래밭', '역사'와 '자연'에 대한 일련의 질문들에 대답하면서, 오랫동안 내 머리 속에 박혀 떠나지 않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내게 던졌다.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문제가 되는 건, 혁명이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나는 이 문장이 내 머리에서 줄곧 떠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건 1977년에 나온 말이므로. 그러니까 이 시기, 대부분의 프랑스 지식인들이 아직도 후기 좌익사상이라는 저 끝없는 진창 속에서 절벽거리고 있을 때, 미셸 푸코는 이 엄청난 대단원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시기에 지적했던 것이다. 베를린과 사회주의의 내향성 폭발이 있기 십년전에,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그 욕망, 혁명에 대한 욕망의 해체를 말한 것이다. (중략)